

한국과학기술원 崔 德 隣 원장

대담 /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

장소 : 파충 회의실

일자 : 6월 16일 오후 2시

“세계 10위권 대학으로 끌어올리겠다”

11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한국과학기술원 10대 원장으로 선임된 최덕인박사는 “KAIST를 세계적인 명문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연구중심 대학원대학으로 끌어올리겠다”고 강조했다. 최원장은 “KAIST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저명한 대학과 교류를 확대하고 외국인 교수를 가능한 많이 확보하겠으며 IMF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도 적극 참여하여 사회와 기업의 수요에도 부응토록 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 바쁘신 가운데 「과학과 기술」지를 위해 시간을 내 주시어 감사합니다. 먼저 정부 출연연구기관 최초로 실시된 원장 공모에서 11명의 경쟁자를 물리치고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최박사가 한국과학기술원 10대 원장에 선출된 것은 최박사의 어떤 점이 평가되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취임소감과 함께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연구중심 대학원대학으로

이번에 응모한 모든 분들이 학문

과 인격 면에서 훌륭하셨는데 여러 면에서 부족한 제가 원장으로 뽑혀 이 분들에게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를 원장으로 뽑아 주신 것은 일을 추진할 때 신중히 접근하나 일단 결심이 서면 열심히 추진하는 점을 인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그동안 우리나라 대학원 교육을 선도해 왔다고 자부합니다. KAIST를 세계적인 명문대학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연구중심 대학원대학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 임기 3년동안 어떤 점에 대해 관심을 갖고 힘을 기울일 계획이신지요.

KAIST는 설립후 27년동안 박사 3천2백여명을 포함하여 1만8천여명의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배출했습니다. 이들은 사회 각 분야에서 연구개발의 주역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어 국내·외적으로 크게 인정받고 있지요.

제가 임기동안에 할 일은 KAIST를 세계적인 대학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라 봅니다. 우리의 역량으로 불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KAIST는 현재 양적인 면에서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했다고 봅니다. 앞으로 질적인 면에 중점을 둘 생각입니다. 기초분야는 학문적 탁월성의 성취에, 공학분야는 국가와 사회의 요구에 보다 가시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명 대학 교와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역량있는 외국인 교수를 가능한 한 많이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KAIST에서 교육받은 모든 학생들이 국내는 물론 국외에 나가서도 자신감을 갖고 국가사회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과학기술원을 세계 상위 10위권에 드는 우수한 대학원 중심의 연구대학으로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상은 어떤 것이지요.

기초분야는 세계적인 학자들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공학분야는 첨단 과학기술개발과 IMF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개발에 적극 참여하여 사회와 기업의 수요에도 부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현재 KAIST를 세계 10위권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계획(World Top 10)이 마련되고 있는데 이를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 한국과학기술원은 일반 이공계 대학과는 달리 기업과 협력하는 산·학협동 연구개발 사업을 활발히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IMF사태로 해서 이같은 프로젝트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데 이같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지요. 과학기술원의 연구분위기 활성화 방안과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합

니다.

신기술창업지원단 활성화

KAIST는 벤처창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는 신기술창업지원단을 설치 운영중입니다. 신기술창업지원단은 그동안 많은 성과가 있었습디만 앞으로 이를 더욱 활성화해서 보다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도록 힘을 쏟겠습니다. IMF사태가 산·학협동사업에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KAIST의 경우 97년과 비교하여 특별히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지난 5월까지 2백80억원의 수주액을 기록, 이같은 추세대로라면 금년 말까지 작년 수준인 7백억원은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어 올해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도가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KAIST는 국내 어느 대학, 어느 연구소 보다 연구를 위한 기반조성이 잘 되어 있어 교수와 학생들이 힘을 모아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 한국과학기술원은 우리의 낙후된 과학기술 수준을 단기간에 효과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 형태의 교육 기관입니다. 하지만 국가 전체적인 안목에서 한국과학기술원도 교육부가 관할해야 한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물론 이는 설립당시부터 있어 온 이야기입니다만 이제 설립 30년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서 이 문제도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60년대 우리나라 대학 특히 대학원 교육은 매우 척박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KAIST가 설립되어 국내 대학원 교육의 전형을 확립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국내 대학원교육을 선도해 왔습니다. 지금은 우수한 대학이 많이 생겨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KAIST의 역할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지금까지는 국제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위해 선진제도를 도입하고 모방함으로써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세계적인 대학과 경쟁을 해야만 합니다. 이를 선두에서 시도하고 성공할 수 있는 국내 교육기관이 필요한데 KAIST가 바로 이를 해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 확신합니다.

우수한 대학의 역할이 국가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미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가 어려울 때도 세계 최고 수준의 대학을 유지하는데 힘을 쏟았습니다. 오늘 미국이 세계의 지적산업을 주도



▲ 신임 한국과학기술원(KAIST) 崔德隣원장이 李光榮 본지 편집위원에게 취임소감과 향후 KAIST 연구분위기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

하고 있는 것은 이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세계 수준의 우수한 대학을 가져야 하며 이에 가장 가까이 있는 KAIST가 이를 선도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KAIST가 어느 정부부처에 소속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 아니고 보다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체제가 어떤 것이냐 하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KAIST의 부처 이관문제를 논의할 시기가 아닙니다.

■ 고등과학원에 대해 부정적인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고등과학원 발전을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요.

치열한 국제 기술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하여 기초과학분야의 육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고등과학원이 KAIST 부설로 설치된 것이 96년 10월이므로 지금은 이 기관의 설립 초기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아직 이른 감이 있습니다. 고등과학원의 발전에 관하여는 기초과학분야의 연구와 교육에 많은 경험과 경륜을 갖추신 고등과학원 원장 김정욱박사와 긴밀하게 협의할 것입니다. KAIST의 자연과학부와 연계방안 등 기관발전에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 최원장께서는 평소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말해왔습니다. 그러나 IMF라고 하는 특수상황에서 기초과학이 설 땅이 종전보다 좁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런 때 기초과학이 해야 할 일과 국가가 기초과학 육성을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라 보시지요.

기초과학 튼튼해야 위기극복

모든 분야가 IMF 위기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위기의 때를 맞았다 해서 기초과학분야 육성을 소홀히 해서는 안됩니다. 급한 곳이 많으니 기초과학분야가 우선 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급하고 위기일수록 기초를 튼튼히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기초과학이야말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육성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앞서서도 지적했습니다만 미국의 경우 80년대 경제가 어려웠을 때 대학의 기초과학연구를 꾸준히 지원함으로써 이것이 90년대 경제회생의 바탕이 되었다는 사실을 정책당국자는 알아야 합니다.

■ 최원장께서는 플라스마 분야의 전문가로 '95년부터 기초과학연구소장으로 우리나라 핵융합프로젝트를 주도해 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정에서 핵융합 같은 거대 과학에 대해 큰 힘을 기울여야 하는지요.

핵융합연구프로젝트가 착수되던 95년도 말에 비해 경제를 비롯한 모든 환경이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야 할 일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선택적으로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해야 합니다. 플라스마 핵융합장치(KSTAR)개발사업은 대형 초전도 자석기술, 대용량 초고진공기술, 대전류 전원 제어기술 등 극한 첨단기술을 국내산업에 접목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수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한국중공업, 포스코 등 10개 국내 대기업들

이 이미 3백30억원의 자체개발비를 직접 투자한 사업입니다. 이들 기업들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는 물론이고 세계 핵융합 기술개발 본류에 국내 산업계가 독자적 기술을 갖고 당당히 진입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투자는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 최원장께서는 평소에도 말씀을 소신있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과학기술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기관 교통정리에 대해 한국과학기술원과 연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지금의 여건이 연구계 뿐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몸살을 앓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하루라도 빨리 거품을 제거하여 효율성을 높이는 일은 시급하고도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면에서 연구기관의 구조조정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다만 목적에 충실하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되어 정부와 연구기관 그리고 수요자인 국민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윈윈(Win-Win)의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최원장께서 현재 한국물리학회 회장을 맡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업무로 해서 학회장직 수행에 어려움은 없으시지요?

물리학회 회장은 2년 임기로 저의 임기는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도움으로 학회의 재정자립과 국제화, 정보화 등에 큰 성과를 보고 있습니다. 간사장을 중심으로 학회의 관련 임·직원이 열심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의 적극적 관여 없이도 훌륭히 학회업무가 수행되리라 믿습니다. ⑤7